

절대빈곤 장애가구주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연구

-2015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for Absolute Poor Disabled Householders

- Focused on the 2015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

Kyong Jun Lee*

Department of Elderly Welfare, Joongbu University, 201 Daehangno, Chubu-myeon, Geumsan-gun,
Chungnam, Korea

Abstract

This study discovers the effects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on absolute poverty of disabled householders using a survey of 581 disabled householders. The '2015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were used for an empirical analysis of a total of 12 socio-demographic, economic and welfare variables. 328 persons of the sample (56.5%) were poor and 253 persons (43.5%) were non-poor. 383 persons (65.9%) of the sample had a high work capability, 81 persons (13.9%) had a capability of simple work, 81 persons (13.9%) failed to show a capability of simple work, and 36 persons (6.2%) had the incompetence of work. The most frequent state of participation in main economic activities was "economically inactive" (284 persons; 48.9%), followed by self-employed (129 persons; 22.2%), regular job (56 persons; 9.6%), daily job (45 persons; 7.7%) and temporary job (42 persons; 7.2%), employer (5 persons; 0.9%), unpaid family worker (5 persons; 0.9%) and the unemployed (3 persons; 0.5%). As for the monthly income of households, the options of less than 1 million won, 1 million won ~ 2 million won, 2 million won ~ 3 million won, 3 million won ~ 4 million won and more than 4 million won were chosen by 375 persons (64.5%), 82 persons (14.1%), 49 persons (8.4%), 27 persons (4.6%) and 48 persons (8.3%), respectively. In light of these results,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disabled householders continues to increase, despite the governmental support on the settlement of welfare system in Korea. The aging trend and the

* Tel. +82-41-750-6216. Fax. +82-41-750-6425. E-mail. Lp2094@hanmail.net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n. 25, 2015 / Revised: Aug. 13, 2015 / Accepted: Aug. 20, 2015

long-term economic downturn are the main reasons to affect further increase in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disabled householders.

Key words: absolute poverty, a reflection of independent living for disabled householders, basic livelihood secur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가구주의 절대빈곤에 미치는 변인을 ‘2015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총 581명으로, 인구 사회학적, 경제적, 복지적 요인 등 3개 요인과 총 12개 변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전체적인 결과 ‘빈곤’이 328명(56.5%), ‘비빈곤’이 253명(43.5%)으로 장애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빈곤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능력 정도는 근로 가능 383명(65.9%), 단순 근로 가능 81명(13.9%), 단순 근로 미약 81명(13.9%), 근로 무능력 36명(6.2%) 순으로 나타났고,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비경제활동인구 284명(48.9%), 자영업 129명(22.2%), 상용직 56명(9.6%), 일용직 45명(7.7%), 임시직 42명(7.2%), 고용주 5명(0.9%), 무급가족종사자 5명(0.9%), 실업자 3명(0.5%) 순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 소득은 100만 원 미만 375명(64.5%),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82명(14.1%),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49명(8.4%),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27명(4.6%), 400만 원 이상 48명(8.3%)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장애인 가구주의 절대 빈곤율이 복지제도의 정착과 정부의 중점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지 않고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화 추세와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장애가구주의 빈곤율은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른 해당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지원의 한 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경제적 보완지원책이 요구된다.

주제어: 절대빈곤, 장애가구주 자립 성찰, 기초 생활 보장

1. 서론

일반적으로 장애 가구주는 비장애 가구주에 비해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장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나 취업률 및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손상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도 많아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 차이는 단순 비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더욱이 장애인 가구 내 비장애가구원도 장애인 가구주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제대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비장애인 가구보다 낮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Kim, et. al., 2012). 이러한 상황은 저소득층 장애가구주의 심리정서적 차원에서의 위험요인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으며(Kim, 2014),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반적 생활안전을 위해할 수 있어(You, Lee, and Ryu, 2007) 해당 가구들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위기문제로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빈곤(poverty)과 장애(disability)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극복대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어 있다. 그런 만큼 199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소득보조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재활지원

이나 고용지원과 같은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Du, 2010).

최근 20여 년 동안 국가적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인 부가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지만, 각종 산업 재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장애인구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Byeon, 2014). 보건복지부의 2014년 현재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2005년 1,699,329명에서 2008년 250만 명으로 등록 장애인수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2014년 25.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의 연령별 분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노인 인구의 장애율 또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전체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도 24.3%로 높아지고, 만성질환 보유율이 77.2%에 달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도 월16만4천원으로 2011년 조사에 비해 2.2% 증가한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는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이고, 이는 전국 인구 대비 취업률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그만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실업 등에 대한 장애계의 열악성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천원으로 지난 2011년 조사에 비해서는 12.8%p 증가한 수준이지만, 이 또한 같은 기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치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체 장애인 가구의 67%는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가구의 인식보다 1.7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5). 이러한 통계 수치는 곧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빈곤과 생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기초생활보장의 문제와 직결되는 장애인 가구의 절대빈곤과도 상관성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Byeon(2014)은 경상소득으로 측정된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18.58%로, 일반가구 9.23%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Lee(2009)도 이미 2007년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5.6%로, 비장애가구의 9.7%에 비해 약 1.8배 높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처럼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이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인 기초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Burkhauser and Larrimore(2008)은 미국의 CPS 데이터를 분석하여 근로계약이 있는 근로 연령대 남성의 평균 소득은 근로계약이 없는 근로연령대 남성의 평균 소득의 0.647(1982년), 0.599(1992년), 0.572(2004년)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가 하면, Lee(2008)는 빈곤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여러 사회적 스트레스 모델 중에서 한국 빈곤계층에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한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의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3년간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빈곤계층의 경제적 스트레스 과정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 등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경제적 요인으로서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압박이 더해 개인의 대처자원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스트레스 악화 모델이 빈곤계층의 스트레스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심리적 대처자원으로 경제적 빈곤에 따른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지수혜요인을 반영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Lee & Lee(2010)도 정신건강이 빈곤 지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과 자아 존중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빈곤층과 비빈곤층은 우울과 자기존중감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빈곤층 내부에서도 빈곤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장애 가구주의 빈곤과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볼 때, 장애 가구주의 절대빈곤은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기초한 빈곤은 복지적 요인의 정도에 따라 빈곤극복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적 함의를 얻어낼 수 있다. 따라서 빈곤문제와 관련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대표적 측면들, 즉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과 함께 최근의 복지적 관점에서 공적이전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대비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복지제도적 요인을 본 연구의 틀에 적용한다면 기존 경제적 관점과 개인적 특성 위주의 연구에서 좀 더 확장되어 새로운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절대빈곤 장애가구주의 보다 정확한 생활 실상을 이해하고 효과적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절대빈곤 장애가구주의 빈곤체적의 예측요인으로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및 복지제도적 요인을 적용하여 장애가구주의 빈곤 상태 실상과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요인정보 제공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절대 빈곤(Absolute Poverty)

빈곤의 정의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Webb은 상대적인 ‘빈곤(poverty)’과 구별하여 ‘궁핍(destitution)’을 객관적인 상태라고 보면서 생필품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인 생활력이 감소된 상태를 빈곤이라고 하였다(Shin, 1998).

이 같은 개념의 빈곤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어 왔으나, 전통적으로 절대적인 빈곤(absolute poverty)과 상대적인 빈곤(relative poverty)으로 구분되며(Park, 2001; Shin, 1998), 최근에는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되어 설명되기도 한다(Lee, 2001).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란 단순한 한 가지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지만, 본 연구는 장애 가구주의 절대 빈곤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절대적 빈곤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빈곤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사회의 가치기준에 따라서 결정된다(Noh, 1995). Rowntree(1974)는 절대적 빈곤은 전체 소득이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지 못하는 가정으로 정의하였다. 이것이 1차적

빈곤이라면 2차적 빈곤은 가족의 전체 소득이 단순히 신체적 효율을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만 다른 목적으로는 전혀 지출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절대적 빈곤은 특정 사회의 가치기준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절대빈곤인구의 추정은 하나의 가구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추정한 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였을 경우 빈곤인구로 볼 수 있다(Noh, 199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층의 구체적 식별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 절대적 빈곤이다. 그러나 최저 빈곤 개념으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생계보조 및 자활을 지원받고 있는 집단만을 빈곤층에 포함시키고 주변적 빈곤층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생활여건의 변화나 소득, 기호의 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운 시기에 따른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대빈곤 장애가구주’를 신체, 지체, 정신, 장애 가구주 중 노동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the deserving poor)로서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능력이 없는 거택·시설보호대상 가구, 근로 능력이 있는 가난한 자(the working poor)로서의 자활보호대상 가구, 잠재적 가난한 자(the potential poor)로서의 불의의 사고나 사업 실패, 실직 등으로 빈곤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한계대상 가구로 정의한다.

2. 장애와 빈곤(Disability & Poverty)

장애인의 빈곤문제는 특히 장애와 빈곤이 결합된 이중의 억압과 고통으로 삶을 더욱 힘들게 한다(Meekosha, 2002).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을 상품화(commodification)함으로써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우선 생산의 영역에서 장애인은 비정상인으로 인식되며,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능력에 있어서 비장애인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Barnes, *et. al.*, 1999). 이러한 기능제한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취업이 가장 근본적인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 95.9%(통계청, 2014)인 반면에, 재가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자의 비율이 36.3%였으며, 무직자의 비율은 5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28.7%가 실업자로 같은 시기 일반 실업률 보다 무려 9배가 높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월 평균 소득의 46.4% 수준에 불과함에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즉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한 소득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extra cost of disability)으로 인해 소득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절대 빈곤 측정을 위한 선행 변수 고찰

절대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관련 변수를 보면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복지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분화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와 빈곤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국노동패널의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한 Keum & Kim(2001)은 1차~3차(1998~2000년) 자료를 통해서 상대적 빈곤의 규모를 다룬 바 있다. 이를 통해서 빈번한 빈곤이행의 특성을 밝히면서, 이를 결정짓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여성이며 저학력일수록 빈곤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어 Hong(2004)은 1차~5차 자료를 통해 최저생계비 수준을 당해 소비실태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빈곤선 주변에서 빈곤 진입과 이탈이 빈번하고 가구의 인구학적 측면보다는 가구소득액의 변화에 따른 빈곤 비중이 높음을 밝혔다. Lee(2005)는 1차~6차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가구의 빈곤탈출 결정요인을 빈곤 지위를 종속변수로, 가구소득, 가구육구, 가구내적, 가구외적 특성들을 독립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장애여부, 가구원의 장애상태와 취업형태, 근로소득활동, 사전이전소득, 취업자 수 등이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Kim(2007)은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2005) 원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적용하여 개인, 가구, 장애, 고용특성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그 결과, 개인특성으로는 성별, 결혼상태,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이, 가구특성으로는 가구원수가, 장애특성으로는 장애정도 및 발생시기가, 고용특성으로는 고용형태, 직장 내 지위, 사업장 규모, 업종, 직종, 취업기간, 근로시간이 빈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Song(2007)은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지역별(16개시도)로 세분화하고, 또한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빈곤집단에 속할 확률을 분석하고 지역과 가계의 특성에 따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가구주의 취업여부, 배우자의 취업여부, 가구주의 나이 교육수준, 종사하는 산업의 종류, 가계의 특성, 가계의 특성, 가족의 규모, 근무하는 직장의 규모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특정지역(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가 서울지역에 비해 빈곤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특성에 따라 빈곤에 처할 확률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ckernan & Ratcliffe(2002a, 2002b)은 PSID자료와 SIPP 등의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빈곤의 진입과 탈출의 예측인자로서 취업상태의 변화가 2차적인 결정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장애는 빈곤의 진입에 매우 의미미한 인자로 작용하지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다변적 구조를 통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인자임을 밝혔다. 특히 개인의 고용상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SIPP를 이용한 연구로부터 장애가 빈곤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밝혔다(Ribar & Hamrick, 2003). 따라서 이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위변수

를 종합해보면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가구원수 등인데, 사용 목적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긴 해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를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 성별에 따른 빈곤의 차이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Nickerson, *et. al.*(2006)은 종단 연구를 통해, 남녀 간의 빈곤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가족 월수입이 증가하면 남녀 간의 차이가 줄어들어 수입이 최고인 집단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둘째, 교육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행복하며 소득이 높듯이 높은 주관적 안녕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으로부터 파생되는 노동시장 참여, 건강, 인식된 신뢰, 높은 수입을 제시하였다(Helliwell, 2002). 또한, Park, *et. al.*(2004)는 농촌지역 연구에서 교육수준에 따라 소득 차이가 나타났는데, 무학인 사람은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듯이 교육수준 또한 주요변수가 된다.

셋째, 결혼 상태로 Helliwell(2002)은 결혼한 것과 이혼이나 독신인 것은 전체를 10점 만점으로 볼 때 0.75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 같은 연구에서 별거가 이혼한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혼의 경우에는 헤어짐의 부정적 효과에 적응할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국내의 Park, *et. al.*(2004)의 연구에서도 결혼 상태에 따라 소득차이가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사별한 경우보다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Lee, *et. al.*(1991)의 연구결과에서도 기혼인 사람들이 미혼, 이혼,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 결혼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넷째, 신체적 상태 영역이 포함된 장애 상태로 질병이나 장애 상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Fayers & Klemmack,(1973)는 질병 유무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낮은 소득을 예측할 수 있지만, 반드시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질병이 있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Ko(1995)의 연구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Chung(2003)은 저소득 노인의 연구에서 노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섯째, 종교로 Ko(1995)는 종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해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Bosworth(2006) 또한 종교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종교를 통하여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erris(2002)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나며 스트레스도 낮게 나타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빈도와 삶의 질이 완벽하게 상관관계를 가지지는 않더라도 다른 요소와 함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변수를 바탕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상이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결혼, 소득, 장애, 교육, 종교를 반영하여 분석한다.

2) 경제적 요인

절대 빈곤 장애와 관련 연구들 중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McNeil(2001)은

SIPP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Burkhauser, *et. al.*(2004)은 1981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CPS 자료를 기초로 장애와 비장애인의 근로가능 인구의 소득에 관한 연구로부터 비장애 저소득층에 비해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Mckerman & Ratcliffe(2002)는 1990년대 CPS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와 비장애인간의 경제적 활동기간이 길수록 지속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밝혔다.

Iceland(2003)는 SIPP의 4년간 자료(1996-1999)를 이용하여 대다수의 빈곤층들이 빈곤의 함정에 빠져있는 기간은 4개월 이내에 종결되는 경우가 50%, 1년 이내가 80%로 매우 단기적인 것으로 나타내고, 단지 6% 정도가 빈곤함정에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Ku(2001)도 같은 기간 동안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빈곤 가구의 빈곤 지속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빈곤 이행에는 가구 구성원의 취업이나 실업과 같은 고용관련변수의 변화와 가구 근로소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Lee & Baek(2008)도 빈곤수준에서의 지역 격차, 빈곤구성에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였고, 빈곤 결정에서의 지역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빈곤결정에 지역효과가 존재하는지와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지역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양상과 빈곤 결정에 지역효과를 실증 분석 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로 절대빈곤뿐 아니라 상대빈곤 측면 또한 수도권 보다 지방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경우라 할지라도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의 빈곤율에 비해 지방에 거주할 경우의 빈곤율이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높게 나타나 빈곤 구성에서 지역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빈곤결정에 거주지역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거주가 빈곤 확률을 높이는 지역 효과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빈곤과 지역에 관하여 Kim & Noh(2009)는 15개 광역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구조, 고용, 산업구조, 재정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결합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도가 높고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내 상용직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개발비 지출 수준이 지역의 빈곤율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율의 평균 수치는 13.19%이며 상대적 빈곤율의 수치는 15.50%로 측정하였으며 최근 들어 두 가지 지표가 모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기준에 존재하던 사람에 기반을 둔 반빈곤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Lee(2012)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소득으로 인해 주거지역이 분리된 곳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거지분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주거지 분리에 초점을 둔 이유는 도시지역 계층 간 주거분리가 본인의 선호를 반영하기 보다는 지역적인 차별 혹은 배제의 결과이며, 여기서 지역주민간의 갈등, 무질서, 반사회적 일탈행위가 발생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거주지역에 따라 저소득층의 우울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격차 분석에서는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주거지 분리의 거주효과가 90.4%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장애 가구주나 절대빈곤의 경제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가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근무능력, 경제활동유무나 지속기간, 가구소득수준을 반영하여 분석한다.

3) 복지제도적 요인

Kim(2002)은 한국노동패널자료(1998~1999)를 소득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사적소득이전의 빈곤 완화효과와 빈곤이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적소득이전의 규모가 공적소득이전에 비해 매우 크며, 빈곤완화효과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있어 가구의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복지의 빈곤완화효과와 그 한계에 대해 연구한 Son(2000)은 도시가계조사자료(1996~1998)와 1998년 실업 가구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사적이전소득의 규모와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사적이전은 공공복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나,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적이전이 극빈층의 빈곤 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지만 극빈층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 복지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 가구주의 절대빈곤에 대한 공공부조의 공적이전의 수혜가 늘고 장애인 가구주 또한 사적이전소득을 보충하려고 노력하는 가구주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또한 복지적 관점에서 제공되는 공·사적이전소득을 반영하여 장애 가구주의 절대빈곤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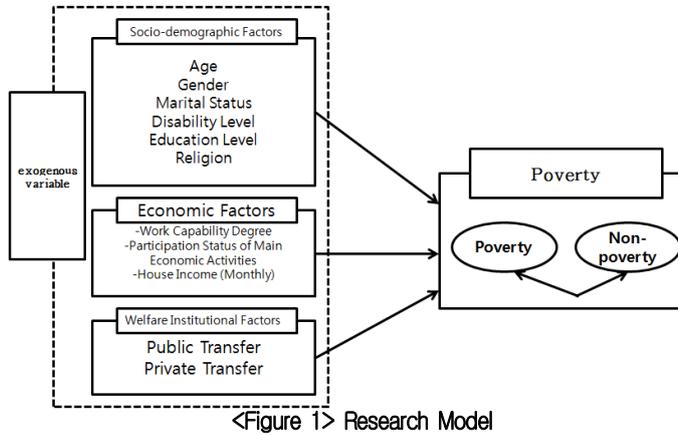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절대빈곤에 대한 사용변수를 보면 여러 측정변수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대표적인 지표이며, 이미 한국복지패널에서도 동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일정기간 수행된 바에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한다. 척도는 패널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을 이용한다(Kim et al., 2012).

본 연구는 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실상과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요인정보 제공과 방안 모색을 위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장애가구주의 절대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가구주의 빈곤케적의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 결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Figure 1>과 같은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5년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에서 제공한 9차 자료를 사용한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서울을 비롯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비롯한 9개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 자료이다. 또한 한국복지패널은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 등의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 제고와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 복지수급실태,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구축된 패널이다. 이 자료는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로부터 1단계 표본을 추출하여 전국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며, 저소득층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가구와 중위소득 60%의 일반가구를 각각 50%씩 표본 추출하였다.

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의 빈곤 장애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빈곤가구는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구분에 따라 중위균등화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가구는 장애등급에서 장애 비해당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 성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빈곤 328명, 비빈곤 253명 등 총 5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분석 도구

1) 종속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빈곤여부이다. 우선 빈곤여부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곤을 어떻게 측정하며, 빈곤을 어떻게 구분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빈곤은 실제로 빈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정부의 빈곤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빈곤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또한 빈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빈곤정책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빈곤을 측정하는 데에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이러한 빈곤측정과 관련된 쟁점들을 이해하는 것은 빈곤 연구나 빈곤정책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

(1) 빈곤의 측정

첫째,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economic capacity)을 판단할 수 있는 소득(income), 소비(consumption), 부(wealth) 중 어느 것이 빈곤측정의 기준으로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이다. 이 중 부는 대부분의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생업에 필수적인 자동차를 제외하면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빈곤측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소득과 소비 중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어느 것이 적절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소비는 상관관계가 높아 이 둘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개인의 소비성향 등으로 인해 소득과 소비의 상관관계가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소득과 소비 중 어떤 기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논쟁에 대해 Kim, et. al.(2002)는 다음의 두 가지 논리로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 빈곤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basic 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소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때,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러한 상태를 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둘째,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때 현재의 단기간의 소득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의 소득까지 고려한 개념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때, 소비가 이러한 소득개념을 대변하는 더 정확한 지표(proxy)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관한 자료가 구하기 쉽고 더 정확하다는 실제적인 이유와 소비에의 취향(taste) 차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득이 빈곤측정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둘째, 소득을 빈곤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때 어떤 소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소득은 어떤 주어진 기간에 있어 어떤 사람의 부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가 지출할 수 있는 액수(Atkinson, 1998; Lee et al., 2001)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소득은 보편적으로 근로소득(earnings), 자본소득(capital income: 이자소득·임대소득·배당소득), 이전소득(transfer income) 등으로 정의되나 연구자나 각 기관에 따라 그 범주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Table 1>와 같이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공부조에 의한 현금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다.

<Table 1> The Classification and Contents of Income Defined in This Study

Classification	Income Contents
Earned Income	Pay, Self-employed Income, Agricultural and Fishery Income, By-job Income
Assets Income	Financial Income Including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Rental Income
Public Transfer Income	Pension, Government Subsidy by Social Security System
Private Transfer Income	Private Insurance/Pension, Subsidy of Private Organizations
Other Incomes	Savings, Saving Insurance, Property Sale Price, Etc.

2) 독립 변수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 가구주 성별

가구주의 성별은 개별가구의 빈곤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가주 가구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 탈피율이 낮고, 빈곤기간이 긴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Rank, 1985; Choi, 2001). 특히 노동시장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차별(sexism)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disablism)을 동시에 겪고 있다(Yu, 2000). 스웨덴의 여성장애인 단체인 SHIA(Swedish Organization of Handicapped Aid Foundation)는 성차별, 장애차별의 이중차별에 빈곤을 첨가하여 여성장애인의 삼중차별로 정의하고 있을(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바, 이를 반영하여 분석한다.

(2) 연령

일반적으로 가구주 연령의 증가는 노동시장에 진입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빈곤탈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und, 1991). 하지만, 가구주의 연령이 빈곤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Plotnick, 1983, Choi, 2001). 취업이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기술 및 경험이 더 많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Lee, 1997),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수요조사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고용제외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Uh, 1996). 그러나 이는 노인빈곤가구의 빈곤지속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Ku, 2001), 노령이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가구주와 단독가구가 장기빈곤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3%에 이른다는 조사결과(Park, 1997)를 볼 때, 일정연령 이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여 분석한다.

(3) 교육수준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의 질적 차이는 곧 생산성의 차이이며, 이는 곧 임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과 같은 인적자본에의 투자는 빈곤탈피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실제로 Lee(1999)의 연구에서도 가구주의 교육수준의 증가가 빈곤탈피확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반면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개별가구의 빈곤기간 또는 빈곤탈피확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Choi, 2001)도 있다. Uh(1996)은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의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취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교육수준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쉽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그에 따른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도 향상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직업시장에서 향상된 기대수준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은 빈곤탈피의 주요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4) 결혼상태

Rank(198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혼가구의 경우 미혼가구에 비해 빈곤으로부터 빨리 탈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의 결혼상태가 빈곤탈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Lee(1997)의 분석에 따르면,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노동력의 측면에서도 기혼자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장애인근로자 장기근속요인에 관한 Kim & Kim(1995)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결혼은 지속적으로 재직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를 반영하여 분석한다.

(5) 장애수준

장애인의 장애수준은 상태에 따라 다르며 이의 수준에 따른 상태는 곧 경제활동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짓게 되고 이는 곧 소득과 빈곤 탈피로 이어지는 주요변수가 된다. 장애수준의 경우 1급에서 6급 까지 되어 있으며, 1급을 “6”, 2급을 “5”, 3급을 “4”, 4급을 “3”, 5급을 “2”, 6급을 “1”로 역코딩하여 분석하며 여기서 장애수준의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급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6) 종교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종교는 자신의 생활을 이끌어 가는 심리적 안식처로 안정감을 갖고 바른생활태도를 가지려는 노력이 함께 개입되므로 빈곤 극복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여 분석한다.

2) 경제적 요인

(1) 근로 능력

빈곤감소 효과 및 소득불평등 완화에 관해 연구한 Jeon(2010)은 가구주의 근로능력에 따라 이 같은 능력을 높은 빈곤감소 효과성과 빈곤 탈피율을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능력은 근로 활동을 의미하고 이는 곧 소득의 증대를 의미하므로 빈곤탈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여 분석한다.

(2) 경제활동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개별가구의 빈곤기간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빈곤은 실제 자신이 속한 노동시장에서의 위치, 특성 및 노동구조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Lee, 2001; Choi & Choi, 1995). 또한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비정규직이거나 미취업자인 경우 정규직 봉급생활자에 비해 빈곤탈피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ne & Ellwood, 1986; Petersen, 1995; Lee,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한다.

(3) 근로소득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소득은 가구소득의 중심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구소득,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을 통한 근로소득의 증가가 빈곤의 진입과 탈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한 Oxley, et. al.(1999)와 Kim(2002)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을 본 연구에서 반영하여 분석한다.

3) 복지제도적 요인

(1) 공적이전소득

Danziger, et. al.(1981)은 사회보장은 빈곤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이러한 재분배적 효과는 이전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 확대된다는 결론을 내렸다(Yu, 2000). 또한 Bane & Ellwood(1986)는 실업급여나 장애수당, 공공부조 등의 사회보장이전급여가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은 크게 사회보험급여로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대상이 되고, 사회부조성 급여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긴급복지지원금, 경로연금, 바우처 지원금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 공공부조는 빈곤층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이상으로 일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장애수당 등 공공부조 급여가 빈곤탈피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여 분석한다.

(2) 사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은 빈곤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유지 기제로서 사적 보험이나 연금 및 사회, 종교 단체 후원금 등이 그 대상으로 하며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Ha, 1999). 또한 Son(1999)의 연구에 의하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에 있어 사적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사적이전은 공공복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극빈층의 경우 빈곤 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지만 이들의 생활을 유지하는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빈곤가구의 근로소득은 비빈곤가구에 비해 매우 낮으며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반면, 사적이전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내, 빈곤가구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사적이전소득은 사적보험과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민간단체 기부나 후원금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반영하여 분석한다.

IV. 연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다음 <Table 2>은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연령은 30대 10명(1.7%), 40대 56명(9.6%), 50대 92명(15.8%), 60대 이상 423명(72.8%)으로 나타났고, 성별은 남자 451명(77.6%), 여자 130명(22.4%)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유배우 549명(94.5%), 무배우 32명(5.5%)으로 나타났고, 장애 수준은 비장애 214명, 장애 6등급 75명(13.1%), 장애 5등급 60명(10.3%), 장애 4등급 65명(11.2%), 장애 3등급 68명(11.7%), 장애 2등급 46명(7.9%), 장애 1등급 32명(5.5%), 비등록 장애인 20명(3.4%)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무학 72명(12.4%), 초졸 이하 174명(29.9%), 중졸 이하 100명(17.2%), 고졸 이하 156명(26.9%), 대학 이상 79명(13.6%)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있음 305명(52.5%), 없음 276명(47.5%)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60대 이상이 전체 63.4%로 압도적으로 많아 장애인 빈곤문제 또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층에서 어려움이 가장 많고 이는 비빈곤의 36.6%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서 그만큼 노인 연령대들이 취업이나 소득원의 상실로 비빈곤대상보다 더 낮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특징은 장애 4등급부터 2등급이 가장 빈곤율이 높은 현실을 볼 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이는 결국 정상적인 기초생활마저 위협받는 환경에 있음을 시사하고 특히 이들은 낮은 교육수준으로 경제활동의 제한에 따른 열악한 빈곤의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었음을 의

미한다.

<Table 2> Poverty on Socio-demographic Factors of Those Surveyed

Factor	Variable	Measurement	Frequency	Percent(%)
1.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30s	10	1.7
		40s	56	9.6
		50s	92	15.8
		Over 60s	423	72.8
	Gender	Male	451	77.6
		Female	130	22.4
	Marital Status	Non-married	32	5.5
		Married	549	94.5
	Disability Level	Non-disability	214	36.8
		Disability Grade 6	76	13.1
		Disability Grade 5	60	10.3
		Disability Grade 4	65	11.2
		Disability Grade 3	68	11.7
		Disability Grade 2	46	7.9
		Disability Grade 1	32	5.5
		Non-registered Disability	20	3.4
	Education Level	Ineducation	72	12.4
		Under Elementary School Education	174	29.9
		Under Middle School Education	100	17.2
		Under High School Education	156	26.9
		Over University Education	79	13.6
Religion	No	276	47.5	
	Yes	305	52.5	
Total			581	100.0

2.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요인

다음 <Table 3>는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근무능력 정도는 근로 가능 383명(65.9%), 단순 근로 가능 81명(13.9%), 단순 근로 미약 81명(13.9%), 근로 무능력 36명(6.2%) 순으로 나타났고,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비경제활동인구 284명(48.9%), 자영업 129명(22.2%), 상용직 56명(9.6%), 일용직 45명(7.7%), 임시직 42명(7.2%), 고용주 5명(0.9%), 무급가족종사자 5명(0.9%), 실업자 3명(0.5%) 순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 소득은 100만 원 미만 375명(64.5%),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82명(14.1%),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49명(8.4%),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27명(4.6%), 400만 원 이상 48명(8.3%)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근무능력에 있어 근로 가능이나 단순근로 가능 빈도가 높으나 비경제활동에 따른 근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48.9%로 과반수에 이르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고 그나마 근로가 가능한 대상도 가구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이 64.5%로 나타나 국민 기초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점에서 경제적 자립의 곤란으로 장애인의 절대 빈곤비율이 높아지는 실질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Table 3> Economic Factors of Those Surveyed

Factor	Variable	Measurement	Frequency	Percent(%)
2. Economic Factors	Work Capability Degree	Work Possibility	383	65.9
		Simple Work Possibility	81	13.9
		Simple Work Weakness	81	13.9
		Work Incapability	36	6.2
	Participation Status of Mair Economic Activities	Regular Job	56	9.6
		Temporary Job	42	7.2
		Daily Job	45	7.7
		Self-support Work	12	2.1
		Employer	5	0.9
		Self-employed	129	22.2
	House Income (Monthly)	Unpaid Family Worker	5	0.9
		Unemployed	3	0.5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284	48.9
		Under 1 million won	375	64.5
		Under 1 million won~2 million won	82	14.1
		Under 2 million won~3 million won	49	8.4
Under 3 million won~4 million won		27	4.6	
over 4 million won		48	8.3	
Total			581	100.0

3. 조사대상자의 복지제도적 요인

다음 <Table 4>은 조사대상자의 복지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공적 이전은 평균 262.45만원으로 나타났고, 사적 이전은 평균 115.36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금액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 빈곤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생활비용으로는 절대 부족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복지적 관점에서의 수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뒷받침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able 4> Welfare Institutional Factors of Those Surveyed

(Unit : 10,000 Won)

Factor	Variable	Measurement	Mean(M)	Standard Deviation(SD)
3. Welfare Institutional Factors	Public Transfer	Sum of Basic Living Wage, National Pension, and Disability Allowance	262.45	612.258
	Private Transfer	Sum of Private Insurance and pension, and Support Fund of Private Organizations	115.36	272.412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복지제도적 요인에 따른 빈곤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복지적 요인에 따른 빈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빈곤’이 328명(56.5%), ‘비빈곤’이 253명(43.5%)으로 대체적으로 장애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빈곤계층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 인구사회학적요인에 따른 빈곤

다음 <Table 5>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빈곤을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연령, 성별, 장애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01$), 먼저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계층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빈곤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준에 따라서는 장애수준이 높아질수록 빈곤계층이 많아지는 것을 나타냈고,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Poverty on Socio-demographic Factors

Factor	Variable	Measurement	Poverty N(%) /M(SD)	Non-poverty N(%) /M(SD)	Test Result (Statistics)
1.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30s	3(30.0)	7(70.0)	30.710*** (.000)
		40s	20(35.7)	36(64.3)	
		50s	37(40.2)	55(59.8)	
		Over 60s	268(63.4)	155(36.6)	
	Gender	Male	228(50.6)	223(49.4)	28.542*** (.000)
		Female	100(76.9)	30(23.1)	
	Marital Status	Non-married	22(68.8)	10(31.3)	2.083 (.149)
		Married	306(55.7)	243(44.3)	
	Disability Level	Non-disability	101(47.2)	113(52.8)	56.172*** (.000)
		Disability Grade 6	33(43.4)	43(56.6)	
		Disability Grade 5	34(56.7)	26(43.3)	
		Disability Grade 4	47(72.3)	18(27.7)	
		Disability Grade 3	50(73.5)	18(26.5)	
		Disability Grade 2	38(82.6)	8(17.4)	
		Disability Grade 1	22(68.8)	10(31.3)	
	Education Level	Non-registered Disability	3(15.0)	17(85.0)	91.254*** (.000)
		Ineducation	66(91.7)	6(8.3)	
		Under Elementary School Education	125(71.8)	49(28.2)	
		Under Middle School Education	50(50.0)	50(50.0)	
		Under High School Education	60(38.5)	96(61.5)	
Religion	Over University Education	27(34.2)	52(65.8)	1.304 (.254)	
	No	149(54.0)	127(46.0)		
	Yes	179(58.7)	126(41.3)		
	Total	328(56.5)	253(43.5)		

***p<.001

2)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빈곤

다음 <Table 6>는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빈곤을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는 근무능력정도,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먼저 근무능력정도에 따라서는 근무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빈곤계층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따라서는 일용직, 자활근로,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대체로 빈곤 계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월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의 경우 빈곤 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Poverty on Economic Factors

Factor	Variable	Measurement	Poverty N(%) /M(SD)	Non-poverty N(%) /M(SD)	Test Result (Statistics)
2. Economic Factors	Work Capability Degree	Work Possibility	173(45.2)	210(54.8)	59.715*** (.000)
		Simple Work Possibility	66(81.5)	15(18.5)	
		Simple Work Weakness	64(79.0)	17(21.0)	
		Work Incapability	25(69.4)	11(30.6)	
	Participation Status of Main	Regular Job	5(8.9)	51(91.1)	102.022*** (.000)
		Temporary Job	16(38.1)	26(61.9)	
		Daily Job	26(57.8)	19(42.2)	
		Self-support Work	10(83.3)	2(16.7)	
		Employer	0(0.0)	5(100.0)	
	Economic Activities	Self-employed	61(47.3)	68(52.7)	
		Unpaid Family Worker	4(80.0)	1(20.0)	
		Unemployed	1(33.3)	2(66.7)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205(72.2)	79(27.8)	
	House Income (Monthly)	Under 1 million won	288(76.8)	87(23.2)	218.460*** (.000)
		Under 1 million won~2 million won	38(46.3)	44(53.7)	
Under 2 million won~3 million won		2(4.1)	47(95.9)		
Under 3 million won~4 million won		0(0.0)	27(100.0)		
over 4 million won		0(0.0)	48(100.0)		
Total			328(56.5)	253(43.5)	

***p<.001

3) 복지제도적 요인에 따른 빈곤

<Table 7> Poverty on Welfare Institutional Factors

Factor	Variable	Measurement	Poverty N(%) /M(SD)	Non-poverty N(%) /M(SD)	Test Result (Statistics)
3. Welfare Institutional Factors	Public Transfer	Sum of Basic Living Wage, National Pension, and Disability Allowance	116.05 (238.336)	452.24 (851.471)	-6.099*** (.000)
	Private Transfer	Sum of Private Insurance and pension, and Support Fund of Private Organizations	187.53 (331.608)	21.79 (111.968)	8.449*** (.000)
Total			328(56.5)	253(43.5)	

***p<.001

<Table 7>은 복지적 요인에 따른 빈곤을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복지적 요인에 따라서는 공적이전, 사적이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공적이전의 경우 빈곤계층이 116.05만원, 비빈곤이 452.24만원으로 나타나 비빈곤 계층의 공적이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적이전의 경우 빈곤계층이 187.53만원, 비빈곤의 경우 21.79만원으로 나타나 빈곤계층의 사적이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전체적인 분석결과 ‘빈곤’이 328명(56.5%), ‘비빈곤’이 253명(43.5%)으로 대체적으로 장애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빈곤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요인별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연령, 성별, 장애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빈곤에 차이가 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계층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빈곤계층이 많고 장애 수준이 높아질수록 빈곤계층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계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는 근무능력의 정도와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및 가구소득에 따라 빈곤에 차이가 났으며, 일상직업에 근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빈곤계층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자활 근로,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대체로 빈곤계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월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빈곤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지적 요인에 따라서는 공적 이전, 사적 이전에 따라 빈곤에 차이가 났으며, 비빈곤 계층의 공적 이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적 이전의 경우 빈곤계층에서 사적이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장애가구주의 절대 빈곤율이 복지제도의 정착과 정부의 중점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율이 낮아지지 않고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화 추세와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장애가구주의 빈곤율이 더 높아져가는 핵심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2008; 2012)이 밝힌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별 차이를 밝힌 선행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근무능력과 교육수준에 따른 연령이 많은 장애가구주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빈곤의 차이가 큰 것을 새롭게 알 수 있다. 특히 근무 능력과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 일용직, 자활 근로 계층에서 더 높은 빈곤을 나타내 이들 계층의 절대 빈곤으로의 추락 가능성이 높고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 등급별 수준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해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도시인의 기초생활급에도 못 미치는 경제소득과 복지수혜의 부족에 따른 장애인의 절대 빈도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입증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장기적 방치는 결국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져 저소득과 생활의 극심한 어려움으로 우울감, 자살, 범죄 등의 반사회적 일탈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가구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고용안정보장과 복지적 측면에서의 절대 빈곤율이 56.6%에 이르는 심각한 장애가구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 대상별 가구 소득원에 대한 정밀 조사와 더불어 이들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이 많을수록 빈곤 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듯이 공적이전은 근로활동 여건이 열악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며,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급여수준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빈곤 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가구주의 낮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여여부가 빈곤 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그만큼 경제활동이 중요한 변수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에 알맞은 직업의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 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듯 교육평준화는 임금평준화에 기여하는 중요변수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교육기회가 적고 따라서 교육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을 볼 때,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대책 또한 보완되어야 한다.

그 밖에 장애인가구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의 개선을 통한 공공부조의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수급자 중에서도 이전 후 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거나 비수급자 중에서도 실제 소득은 빈곤선에 이르지 못하는 가구가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듯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장애유형별 추가지출비용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소요비용에 비례하여 생계급여 또한 선별적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어 지원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장애가구주의 절대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그 의미와 문제 해결의 기초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패널데이터 분석의 특성상 절대빈곤 장애가구주의 요인별 실상과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또한 사용된 세 가지 변수 외에도 적용 가능한 확장 변수들의 선정으로 다차원적인 빈곤에 관한 상호관계성을 파악하는 접근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가구주의 빈곤 탈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동시 연계한 후속적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Atkinson, A. B. 1998. *Poverty in Europ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Bane, Jo Mary and David T. Ellwood. 1986.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B Dynamics of

- Spell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1(1): 1-23.
- Barnes, Mercer & Shakespeare. 1999. *Exploring Disability: A Sociological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Press
- Bosworth, S. B. 2006. The Importance of Spirituality/ Relig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Individual with HIV/AID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1(Suppl 5): S3 - S4.
- Bound, John, Greg J. Duncan, Deborah S. Lauren and Lewis Oleinick. 1991. Poverty Dynamics in Widowhood, *Journal of Gerontology*. 46(3): 115-124.
- Burkhauser, R., J. S. Butler, S. Feng, and A. Houtenville. 2004. Long-term Trends in Earnings Inequality: What the CPS Can Tell Us. *Economics Letters*. 82: 295 - 299.
- Burkhauser, R., Shauizhang, F., Stephen Jenkins, P. and Larrimore, J. 2008. Estimating Trends in US Income Inequality Using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The Importance of Controlling for Censorin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9)3: 393-415.
- Byeon Yong Chan. 2014. Welfar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2007: Disability Welfare . Health-welfare Policy Forum. 137: 51-63.
- Choi, Jeong Kyun. 2001. A Study on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social security transfers in Korea -focused on the poverty level and the poverty spell. MS Thesis Yeonsei University.
- Choi, Seongja & Choi, Ilseop. 1995. Societal problems and Social Welfare. Paju: Nanam Publishing House.
- Chung, Soon Dool. 2003. Living Arrange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Low-Income Elderl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1): 59-79.
- Danziger, S., R. Haveman and R. Plotnick. 1981. How Income Transfer Programs Affect Work, Savings and Income Distributio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90: 975-1028.
- Du, O-gyun. 2010. Life Security Issue Study of the Disabled.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6(3): 206-222.
- Fayers, J.N., and Klemmack, D.L., 1973.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4): 497-502.
- Ferriss, A. L. 2002. Religion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3): 199-215
- Ha, Yunsuk. 1999. A Study on Effect of private transfer income on Income Inequality , M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Helliwell, J. 2002.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 Well-being. *N BER Working Paper*. w9065
- Hong, Kyung-zoon. 2004. Analyzing the Length of Poverty Spell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4: 187-210.
- Iceland, J. 2003. *Dynamics of Economic Well-Being. Poverty 1996-1999. in Current Population Reports*. Washington. DC: U.S. Census Bureau.
- Jeon, Jihye. 2010. Stud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Depres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 Social Work*. 35: 51-80.
- Keum, Jae-ho & Kim Seong-tak. 2001.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ause of Poverty: Evidence from a Panel Data Analysis.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93-129.
- Kim, Hye Ryoung. 2014.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epression in Low Income Women Elders in Urban Community.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0(1): 163-177.
- Kim, Ki-won, Kim, Seung-A. 1995.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Job Tenure Among Disabled Work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6: 9-50.
- Kim, Kyo-Seong, , Noh, Hye-Jin. 2009. Determinants of Regional Poverty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2): 85-106.
- Kim, Kyo-Seong. 2002. The Effect of Income Transfer on Poverty Rat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8:113-149.
- Kim, Moon-kil, Kim, Tae-wan and Lee, Seo-hyun. 2012. Recent Trends of Poverty and Inequality in Korea. *Health-welfare Policy Forum*. 184: 6-17.
- Kim, Tae-Seong. 2002. *Poverty and Social Welfare Policies*. Seoul: Chongmok.
- Kim, Jong-Jin. 2007. A Study on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Poverty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Ph.D.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 Ko, Seung-Duk, 1995, An Analyt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Ku, Inhoe. 2001.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Poor and Poverty Transition in Korea: Since the Recent Economic Crisi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8: 82-112.
- Lee, Dong-Young. 2005.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overty-Exit Possibility for the Disabled Households Life Table Analysis and Discrete Time Analysis using the KLIPS. *Social Welfare Policy*. 23: 183-211.
- Lee, Du-ho, Choi, Ilseop, Kim, Taeseong, Na, Seongrin. 2001. *Poverty*. Paju: Nanam Publishing House.
- Lee, G. R, K. Seccombe, and C. L. Shehan. 1991. *Marital Status and Personal Happiness: An*

- Analysis of Trend Dat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4): 839-844.
- Lee, Sang-Rok & Lee, Soon-A. 2010. Poverty Status Transition and Mental Health: The effect of Mental health on the poverty status transi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1(4): 277-311.
- Lee, Sang-Rok & Baek, Hak-Young. 2008. Regional Variations of Poverty in Korea - How are Capital and Metropolitan Area Different from Non-Capital and Non-Metropolitan A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0(4): 205-230.
- Lee, Sang-Rok. 2008. Testing Social Stress Models of Lower Income Group.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3): 119-152.
- Lee, Sang-Rok. 2012. The Effects of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Segregation among Income Classes on Mental Health of the Low-Income Poor. *Social Science Research*. 28(4): 277-302.
- Lee, Sunwoo. 1997.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and Employment Forms of the Disabled: An Analysis Using Probit Model. *Korean Social Welfare Studies*. 33: 287-313.
- Lee, Sunwoo. 2009. Comparing Poverty Rates of Households with and without disabled people based on income and consumption: Using the standard of Living approac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0(4): 431-452.
- Lee, Wonik. 1999. A study on poverty dynamics. M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McKernan and Ratcliffe. 2002. Events that Trigger Poverty Entries and Exits. *JCPR*
- McKernan, S. and C. Ratcliffe. 2002. *Transition Events in the Dynamics of Poverty: Research Report*.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McNeil, J. 2001. *Americans with disabilities. 1997*.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70. No. 73).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 Meekosha, Helen. 2002. Virtual Activists? Women and the Making of Identities of Disability. *Hypatia*. 17(3): 67-88.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5. The 2014 Census for the Disabled. Press Release(2015.4.20.).
- Nickerson, D. P., M. West, and G. Odorizzi. 2006. Did2 coordinates Vps4-mediated dissociation of ESCRT-III from endosomes. *J. Cell Biol.* 175: 715 - 720.
- Noh, Incheol. 1995. The Status Changes and Policy Process of Low-Income Groups-Focused on Rehabilitation Sup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Oxley, H. et al. 1999. *Poverty Dynamics in Four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 Park Byeong Hyeon. 1997. A Study on Duration of Pover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2: 45-67.
- Park Yong Sun. 2001. *Poverty and Independence*. Seoul: Hakjisa.
- Park, Ok-Im, Kim, Jeong-Sook, and Chung, Young-Hae. 2004.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among Middle Aged Women in Rural Area.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6(4): 89-99.
- Peterson, Carol D. 1995. Female-headed Families on AFDC: Who Leaves Welfare Quickly and Who Doesn't. *Journal of Economic Issues*. 29(2): 619-628.
- Plotnick, Robert D. 1983. Turnover in the AFDC population: An Event History Analysis. *Journal of Human Resource*. 18: 65-81.
- Rank, Mark R. 1985. Exiting From Welfare: A Life-Table Analysis. *Social Service Review*. 59: 358-376.
- Ribar and Hamrick. 2003. *Dynamics of Poverty and Food Sufficiency*. Food Assistance and Nutrition Research Report FANRR36.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 Rowntree, Derek 1974. *Educational Technology in Curriculum development*. London: Harper and Row.
- Shin, Seop Jung. 1998. *Theory of Social Security Policy*. Seoul: Daehak Publishing company
- Son, Beyong Don. 2000. *Korea's Poverty Since the IMF Crisis*. Paju: Nanam Publishing House.
- Son, Beyong Don. 1999. The Effects of Private Income Transfers' Reducing Poverty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9('99.12): 157-179.
- Song, Yeong Nam. 2007. Study on the Change in Regional Poverty Disparity. *Journal of Korean Industrial Economic*. 20(1): 17-38.
- Uh, Su Bong. 1996. Articles : Disability and the Labor Market.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1): 69-100.
- Yu, Dong Cheol. 2000. A Cause Analysis of High Unemployment and Low Pay for the Disabled: Focused on the Productivity and Discriminative Effec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0(3): 369-382.
- Yu, Hyun-Jeong, Lee, Jae-eun, Ryu, Sang-il. 2007. Risk Management for Vulnerable Consumers' Life Safety: Safety Condi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Juvenile and Elderly Consumers. *Korean Journal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1): 20-40.
- Yu, Jeongwon. 2000.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Poverty in Korea :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4th, 5th and 6th Daewoo Panel Data. MS Thesis Yeonsei University.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고승덕. 1995.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구인회. 200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금재호, 김승택. 2001.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세미나 자료집. 93-129.
- 김교성, 노혜진. 2009. 지역 빈곤의 격차와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2): 85-106.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113-149
- 김기원, 김승아. 1995. 장애인근로자 장기근속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6: 9-50.
- 김문길, 김태완, 이서현. 2012. 최근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보건복지포럼. 184: 6-17.
- 김종진. 2007. 근로장애인이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성 외. 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 김해령. 2014. 도시지역 저소득층 여성노인의 우울과 위험요인. 한국위기관리논집. 10(1): 167-182.
- 노인철. 1995.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정-자활지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두오균. 2010. 장애인의 생활안전문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6(3): 206-222.
- 박병현. 1997. 빈곤의 지속기간에 관한 연구-자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97(8): 45-67.
- 박옥임, 김정숙, 정영혜. 2004. 농촌지역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 박용순. 2001. 빈곤과 자립. 서울: 학지사.
- 변용찬. 2014.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장애인복지분야. 보건복지포럼. 137: 51-63.
- 보건복지부. 2015. 2014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2015.4.20.).
- 손병돈. 1999.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39('99.12): 157-179
- 손병돈. 2000. IMF 이후 한국의 빈곤. 파주: 나남출판사.
- 송영남. 2007. 지역간 빈곤격차의 변화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1): 17-38.
- 신섭중. 1998. 사회보장정책론. 서울: 대학출판사.
- 여수봉. 1996. 한국의 장애인노동시장 분석. 노동경제논집. 19(1): 69-100.
- 유동철. 2000. 장애인 고실업과 저임금 원인 분석: 생산성과 차별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0(3): 369-382.
- 유정원. 2000. 한국 여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연구-제4, 5, 6차 대우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정, 이재은, 류상일. 2007. 취약소비자 생활안전 위해관리: 아동 및 노인 소비자의 안전 실태

- 및 발전 전략. 국가위기관리연구. 1(1): 20-40.
- 이동영. 2005. 장애인 가구의 빈곤탈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생명표 분석과 이산시간분석. 사회복지정책. 23: 183-211.
- 이두호, 최일섭, 김태성, 나성린. 2001. 빈곤론. 파주: 나남출판사.
- 이상록, 백학영. 2008. 한국사회 빈곤구조의 지역 편차 분석: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205-230.
- 이상록, 이순아. 2010. 빈곤지위의 변화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 존중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277-311.
- 이상록. 2012. 소득계층간 주거지 분리의 거주지역 특성이 저소득빈곤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4): 277-302.
- 이상문. 2008. 빈곤계층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3년간의 패널연구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3): 119-152.
- 이선우. 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3: 287-313.
- 이선우. 2009.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따른 빈곤율 비교 -삶의 수준 접근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0(4): 431-452.
- 이원익. 1999. 빈곤지속 기간과 빈곤탈피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지혜. 2010. 장애차별경험과 장애인의 우울감의 관계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51-80.
- 정순돌. 2003. 저소득 노인의 가족동거여부와 삶의 만족도. 한국가족복지학. (11): 59-79.
- 최성재, 최일섭. 199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출판사.
- 최정균. 2001. 사회보장이전의 빈곤제거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윤숙. 1999. 사적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준: 독일 쾰른대학교(Univ. zu Koeln)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Selbsthilfegruppen in Deutschland und in Suedkorea_한국과 독일의 자조모임 연구, 2005년 7월), 현재 중부대학교 노인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다.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장애인 생활안전, 고령장애인, 취약계층 사회심리재활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장애인 국회의원의 의회정치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2015)”, “국내 장애노인관련 연구의 동향분석(2014)”, “장애아동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한 기초방안 연구(2013)” 등이 있다(Lp2094@hanmail.net).